

신용보증제도의 해외 사례

2005. 8. 16

강 동 수

한 국 개 발 연 구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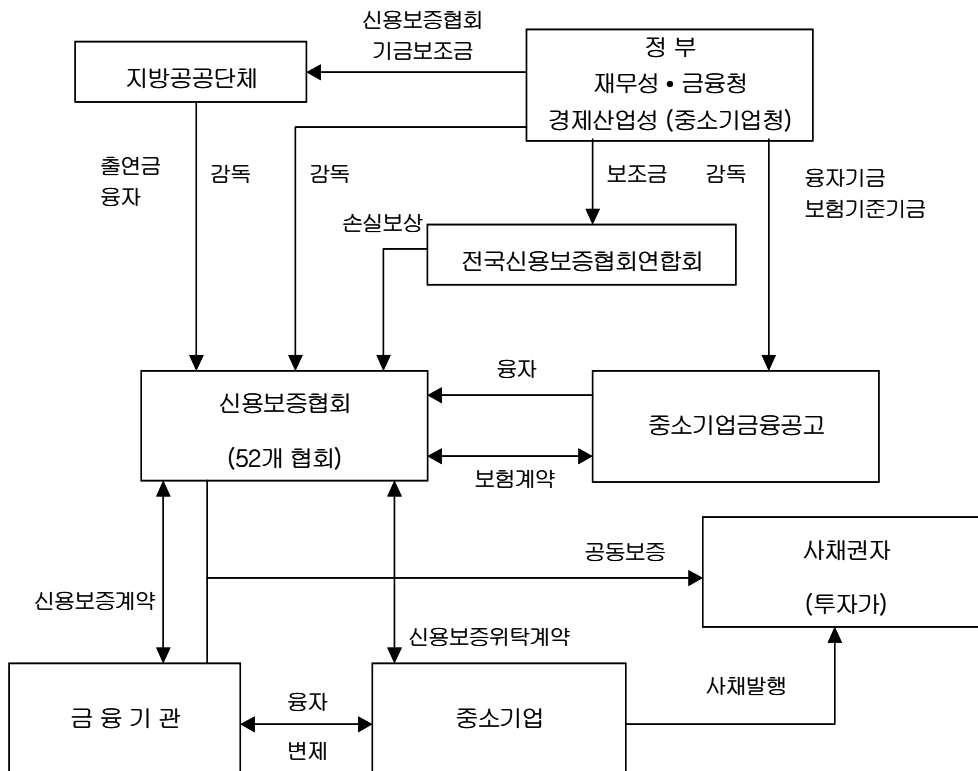
1. 일 본

가. 일본의 신용보완제도 구조

□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특징

-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 보증 기능과 이를 정부 출자의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채보험하는 신용보 험 기능이 연결된 제도로써 이를 신용보완제도라고 지칭함.

[그림 1-1] 신용보완제도 圖示



□ 신용보증

○ 업무의 흐름

* 보증신청 → 보증서 발행 → 용자실행 → 대위변제 → 회수

- ① 중소기업의 보증신청은 i) 금융기관 경유, ii) 신용보증협회에 직접 신청 등 두 가지 방식
- ② 신용보증협회는 보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조사
- ③ 신용보증협회는 심사결과 신용보증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행. 만약 신용보증협회에 신용보증을 위탁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용자를 알선하고 용자가 승인된 이후 신용보증서를 발행
- ④ 금융기관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용자. 이 때 중소기업은 신용보증협회에게 소정의 신용보증료를 지급
- ⑤ 중소기업은 용자조건에 따라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
- ⑥ 중소기업이 차입금의 변제기한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, 금융기관은 신용보증협회에 대위변제를 청구
- ⑦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자를 대신해 전액 지불
- ⑧ 신용보증협회는 대위변제 후 중소기업자에 대해 구상권 취득
- ⑨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자로 부터 구상권을 회수

□ 신용보험

○ 업무의 흐름

* 신용보험 가입 → 신용보험료 지불 → 대위변제 시 보험금 수령 → 회수 및 납부

- ①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승낙하여 용자가 발생하면, 자동적으로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신용보험에 가입

- ②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에 신용보험료 지불
- ③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, 동 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로부터 대위변제금액의 70~90%를 보험금으로 수령
- ④ 사후적으로 중소기업자로부터의 구상권을 회수하면, 신용보증협회는 회수금의 일부(70~90%)를 중소기업금융공고에 납부
- 본 제도의 장점
 - * 신용보증협회의 지불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, 중소기업의 신용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

나. 안정화특별신용보증제도

(1) 개요

☐ 실시 배경

- 일반신용보증제도는 보증기업이 도산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사고율(보증승낙 중 대위변제 비율)을 예산상 2%까지 허용
- 특별신용보증제도는 1998년 가을 최악의 상태를 맞은 신용패닉과 이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급증을 막기 위하여 20조엔 규모의 신규 신용보증을 19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실시한 제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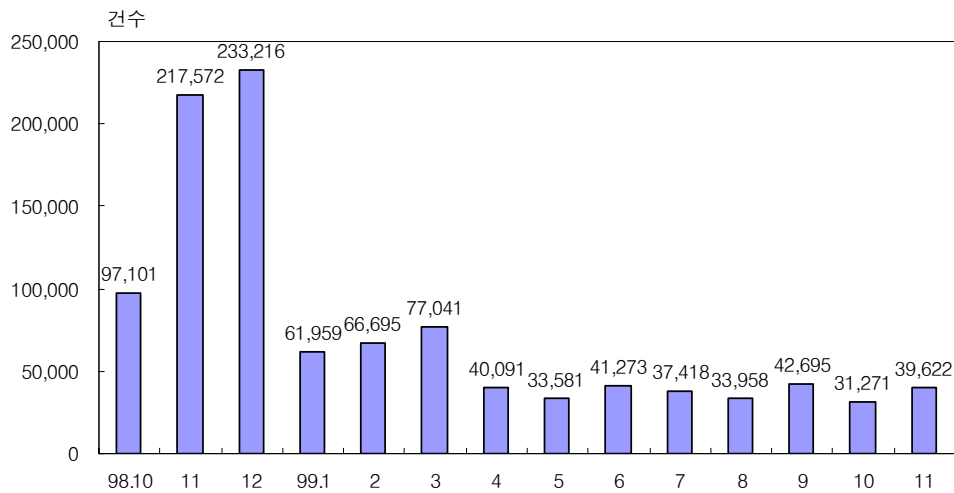
☐ 제도적 특징

- 사태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규모 채무초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보증을 승낙하는 등 보증조건을 대폭 완화
 - * 10%의 사고율을 허용하였고, 대위변제 후 회수율은 50%로 예상하였음.
 - ※ 사후적으로는 약 7%의 사고가 발생하여 양호하게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, 회수율은 2005년 7월 현재 약 10%에 불과하고 향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해도 20%를 초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.

*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인해 중소기업 자금난의 심각성이 해소되지 않자, 1999년 10월 특별보증신용제도의 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 보증규모도 10조엔을 추가하였음.

- 2000년 4월에는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해 고용유지 또는 증가를 도모하거나 생산·판매·경비를 개선하는 등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건설적 노력 계획의 유무를 보증요건에 추가함.
-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이용시기를 전수 기준으로 보면, 1998년 10월 97,101건, 11월 217,572건, 12월 233,216건으로 3개월간에 집중으로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음.
- * 금융시장의 패닉적 상황과 더불어 자금운영난에 빠져 있던 중소기업자가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단기적이거나 자금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음.

[그림 1-2]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이용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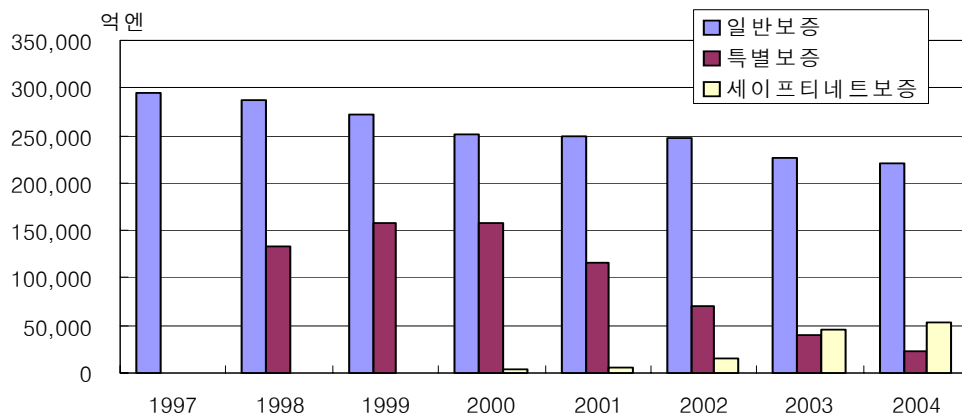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중소기업백서(2000)

□ 특별보증채무잔고의 추이

- 2001년3월말 종료된 특별보증 잔고는 2.2조엔까지 감소
- 특별보증 잔고와 일반보증 잔고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, 최근 들어 세이프티네트보증 확충책의 실시와 더불어, 관련 보증액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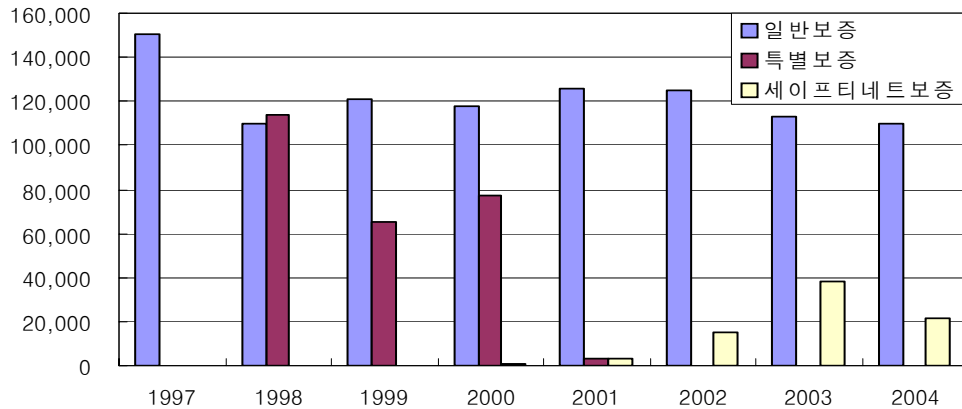
[그림 1-3] 일반, 특별, 세이프티네트 보증채무잔고 추이



□ 특별보증증납액의 추이

- 1998년 금융위기 영향을 받아, 보증증납액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, 현재에는 위기이전 수준에 근접
- 특별보증은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중점으로 이용된 다음, 이를 대신하여 세이프티네트 보증제도가 마련됨

[그림 1-4] 일반, 특별, 세이프티네트 보증승낙액 추이



□ 상정사고율

- 신용보증제도의 상정사고율(금액기준)이 일반보증 2%, 특별신용보증 10%로 책정되고, 특별신용보증의 경우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보험사고도 증가

□ 금액기준 대위변제율

- 1980년도 2.57%, 86년도 2.19%로 상정수준 2%를 상회하였으나, 이후 버블경기 하에서 1990년도 0.45%(878억엔)까지 낮아짐.
- 이후 신용이용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기 시작
 - * 1997년도에는 1.69%(4,987억엔)이던 대위변제율이 특별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0년도에는 2.59%(1조733억엔), 2002년도에는 3.80%(1조2,603억엔)으로 악화되었음.

□ 건수기준 대위변제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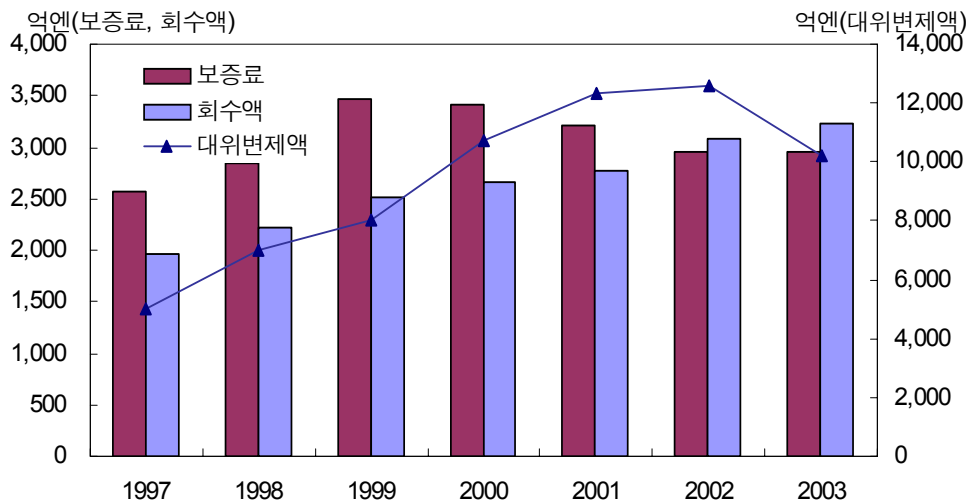
- 1980년대 전반 2.4~2.6% → 1990년도 0.63%(16,068건)
- 1998년도 1.61%(71705건), 2002년도 3.16%(138,488건)
- 건수면에서 최저를 기록했던 90년도에 비해 8.6배 증가

(2) 평가

□ 신용보증제도의 약화와 사회적 부담 증가

- 도산·대위변제율 상승에 따른 신용보증협회의 부담 증가, 대손증가에 따른 중소기업금융공고(JASME)의 경영 악화라는 문제가 발생
 - * 1998년 이후 대위변제액 급증과 회수액 지체로 인하여 신용보완제도의 사업수지는 2002년까지 적자폭이 확대
 - * 특별보증의 경우, 대위변제율은 7.5%로 상정변제율 10%를 하회하였으나, 회수율에서는 상정회수율 50%를 크게 미치지 못하는 10.8%에 불과
 - * 2004년 적자폭은 감소하기는 했으나, 여전히 2,560억엔의 적자를 기록
 - * 신용보험부문별 추이에 주목할 경우, 특별보증제도에 의한 적자확대가 확인
-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최종적으로 조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.

[그림 1-5] 보증료, 회수액, 대위변제액 추이



□ 중소기업금융원활화의 ‘양면성’

- 특별신용보증 등의 중소기업금융원활화대책은 금융위기 등의 일시적 쇼크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위기극복, 성장 및 발전을 지원
- 반면, 중소기업의 차입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기업도산의 시기를 늦출 뿐,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음.

□ 향후 정책 방향

- 중소기업 경영건전화에 필요한 것은 대출원활화가 아니라, 부채비율의 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임.
- 또한, 금융기관이 심사기능을 발휘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자가 존속,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.

2. 대 만

가.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(SMEG)

(1) 조직

☐ 상급 주관부서

- 2003년 4월 주관부서가 재무부에서 경제부 중소기업처로 이관됨.
-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상업은행 및 정책은행의 주관부서로서 간접적 관리(감독) 수행

☐ 직원수

- 보증업무의 증대에 따라 조직이 세분화되고 인원이 증대
* 2004년말 현재 전체 직원수는 295명임.

☐ 지점

- 중부서비스중심, 남부서비스중심 등 2개 지점을 운영 중임.
* 중부지점 직원수 10명, 남부지점 직원수 15명임.

(2) 자금조달

☐ 자금출처

- 전체 운영자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, 지방정부 및 보증협약체결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됨.
- 2004년 6월말까지 출연금은 약 587억원(NT\$)임.
* 정부 83.29%, 금융기관 13.30%, 기타 기관으로부터 3.41%가 출연됨.
* 정부출연금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출연금(NT 475억원)으로 81.03%를 차지함.

☐ 금융기관의 특별출연 비율의 산정

○ 특별출연금 산정을 위한 다섯 가지 기준

① 수익비율 = (개별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 + 부실채권잔액 - 이미 지원한 금액)이 전체 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

② 사용비율 = 개별 금융기관의 보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

③ 규모비율 = (개별 금융기관의 순자산 + 기업여신잔액)이 전체 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

④ 잉여비율 = (개별금융기관의 순익/전체 금융기관의 순익)

⑤ 위험비율 = (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률/전체 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률의 합)

○ 출연비율 = 수익비율 × 0.4 + 사용비율 × 0.2 + 규모비율 × 0.2 + 잉여비율 × 0.1 + 위험비율 × 0.1

(3) 부분보증제도

□ 부분보증제도의 목적

- ①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신용도 조사의 적극성 유도 및 부실채권 회수를 제고
- ② 금융기관의 대출관리역량 제고를 통하여 위탁보증제도 확립 및 보증수속 간편화
- ③ 신용보증기금의 운영비용 및 위험 감소,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촉진

□ 부분보증비율 추이

○ 평균 부분보증비율(부분보증비율)은 7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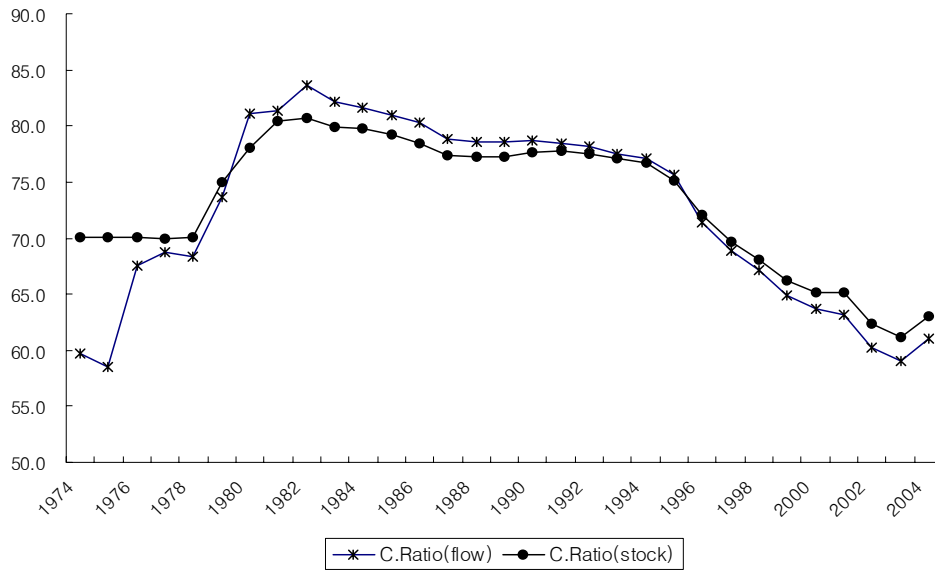
○ 부분보증비율의 추세

* 1980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.

* 2004년까지 누적 계산된 부분보증비율은 대략 70%임.

[그림 2-1] 부분보증비율의 연도별 추세

(단위:%)



주: 부분보증비율(flow) = 연도별 보증금액/연도별 대출총액
 부분보증비율(stock) = 연도별 보증잔액/연도별 대출잔액

나. 평가

(1) 신용보증제도의 운영

☐ 시장친화적 운영

- 공익법인이지만 정부로부터의 간섭이 적음.

* 2003년까지는 SMEG이 재무부의 감독을 받았는데 재무부는 통상 자금 운용의 감독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방만한 경영을 통제할 수 있었음.

* 그러나 2003년 감독기관이 경제부 중소기업처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

정부의 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낮은 수수료율

* 세계적 평균인 2%이라는 사실과 비교하여 0.75~1.5%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

○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

* 대부분의 신용보증은 은행에 의한 위탁보증임.

* 부분보증비율 평균이 70% 정도로 은행들에 의한 자발적인 위험관리를 가능케 함.

* 출연금 실적에 따라 적절한 상벌체계를 갖추고 있음.

* 구상권 회수 실적에 따라 은행에게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

○ 기업 신용상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증조건 제시

* 기업들의 신용상태에 따라 수수료율, 부분보증비율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함.

○ 경기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보증정책을 변화시킴.

* 경기상황이 어려운 경우 완화된 보증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방어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사용

□ 효율적인 기업신용평가 시스템

○ 金融聯合徵信中心(JCIC, Joint Credit Information Center)

* JCIC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신용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.

(2) 문제점

□ 경영적자

○ 1996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
- * 1999~2001년의 경기상황 악화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증가
- * 위험관리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자 문제가 현저히 개선되고 있지 못함.

□ 불안정적인 운영자금

- 현재 기금의 보증배수가 규정 최고한도인 20배에 근접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함.
- * 중앙정부는 2003~2007년 기간에 NT 500억원의 지원을 선포하였음.
- * 그러나 최근 대만정부의 예산적자 문제로 인하여 국회 등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등 아직 복잡하고 긴 절차가 남아 있음.

(3) 최근 동향

□ 신용보증규모의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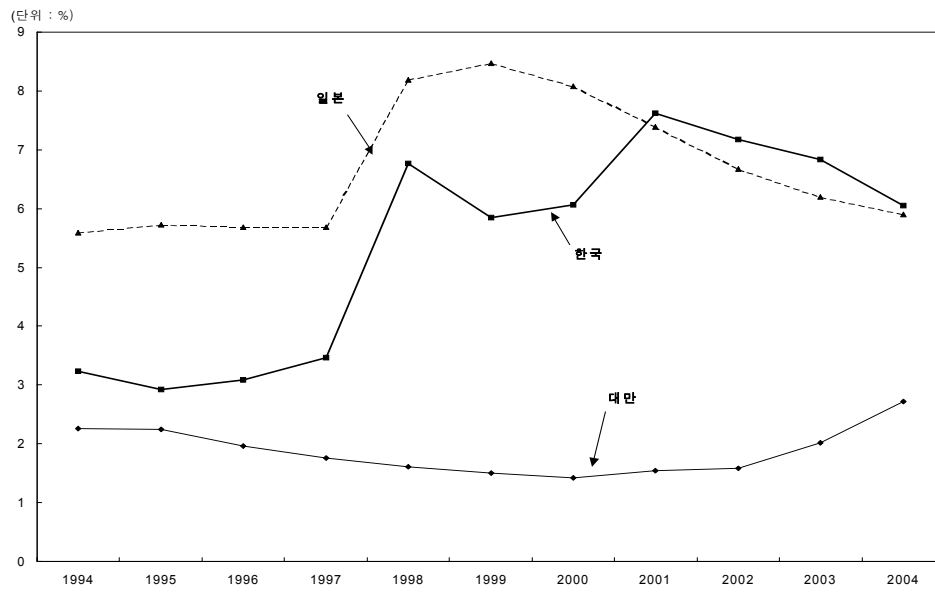
- 2000년 이후 신용보증 급증
 - * 2000년 NT 2067.4억원(이용률 6.03%)에서 2004년 NT 4289.0억원(이용률 15.56%)으로 급증함.
- 이러한 신용보증 급증은 당시의 정책변화와 관련 있음.
 - * 1999년부터 대만정부는 전통산업 진흥전략을 마련함. 이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실패, 생산거점의 중국 본토로의 대규모 이전 등 대만의 전통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임. 이 시기부터 전통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함.
- 감독기관을 재무부에서 경제부 중소기업처를 변경한 것은 보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함.
 - * 과거에는 신용보증을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 수단으로서 역할이 강조되었던 반면, 향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수단이 중요해 지고 있음을 시사

※ 전통적으로 재무부의 고위관리가 차지하였던 SMEG의 이사장에 천 수이벤 총통의 정치적 후인자인 중소기업인이 임명된 것은 향후 보증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임.

- 금융기관이 Barsel II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기업신용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축적을 강화하고 신용보증을 통하여 자산위험도를 낮추려고 노력한 것도 신용보증규모가 급증한 원인이기도 함.
- 2003~2004년 기간동안 경기상황 호전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및 신용보증이 증가하고 있음.

3. 한국, 일본, 대만의 제도 비교

[그림 3-1] 한국, 일본, 대만의 신용보증공급 규모 비교



<표 3-1> 한국·일본·대만의 신용보증제도 비교

	한 국	일 본	대 만
보증형태	공적보증	공적보증	공적보증
보증제도 도입시기	1976년	1937년	1974년
보증기구	신보, 기보	53개 지역 신용보증협회	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(SMEG)
금융기관출연금	매년 출연금 납부	부정기적 출연금	부정기적 출연금
보증수수료	0.5~2.0% (평균 1.07%)	1.25~1.35%	0.75~1.5%
보증기금의 책임보증한도	85% (위탁보증은 80%)	100% (전액보증)	최고 80% (평균 71%)
기업당 보증한도	30억원	2억원 (협동조합은 4억엔)	NT 1억원
위탁보증 이용도	저	중	고
구상권 회수	내부인력	내부인력 및 추심자회사	금융기관에 위탁 추심

<표 3-2> 한국·일본·대만의 신용보증 운영현황 통계 비교

	한국		일본	대만
	신보	기보		
보증잔고	33.57조원	13.51조원	31.10조엔	NT 2926.5억원
보증이용기업수(개)	252,544	80,687	1,864,705	216,964
기금자산	4.39조원	1.19조원	3.20조엔 ⁶⁾	NT 170억원
보증배수 ¹⁾ (배)	7.65	11.36	9.7	17.2
신용보증이용율(%)	16.6	6.7	11.3	15.6
대위변제율 ³⁾⁵⁾ (%)	5.48	6.47	2.25	5.23
회수율 ⁴⁾⁵⁾ (%)	9.59	6.43	34.7	30.8
임직원수(명)	2,103	1,100	6,194	301
지점수(명)	82	53	149	2

- 주: 1) 보증배수 = 보증잔고/기금자산
 2) 신용보증이용율 = 신용보증부대출/중소기업대출
 3) 대위변제율 = 당년도 대위변제/보증잔고
 4) 회수율 = 당년도 회수액/구상권 잔고
 5) 대위변제율과 회수율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 1994~2004년 중 연평균이며 일본의 경우 1994~2003년 중 연평균임.
 6) 기본재산 이외에 차입금 포함.